



봉우 컬럼

도전과 모험

어느 소년이 비가 갠 후 멀리 보이는 산에 선명한 무지개가 걸린 것을 보고는 그 무지개를 찾아 나서리라고 마음먹었다. 소년이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들은 무지개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괜한 고생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꿈을 버릴 수 없었다. 소년은 어느 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무지개를 잡으러 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볼 때와는 다르게 산은 멀기만 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산에 이르렀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산에서 밤을 새면서 소년은 왜 부모님이 자기를 말렸는지 알았지만, 무지개를 잡고 싶다는 생각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산을 타기 시작했다. 험한 산이라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마침내 소년은 산 정상에 올랐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년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지개는 없었다. 부모님 말씀이 옳았다. 그러나 소년은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다. 소년의 눈앞에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방 산으로 가로막혀 그 안이 전부인양 살았던 소년에게 산 너머의 세계는 엄청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소년이 거지 꼴로 집에 돌아오자 걱정하며 동네어귀에 모여있던 소년의 부모와 동네어른들은 소년을 보더니 '가보니 무지개가 있다? 없지? 왜 고생을 사서 해?' 하며 말 안들은 소년을 나무랐다. 소년은 흥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산 너머 세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미 소년의 가슴 속에는 일곱 색깔 무지개가 뜬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저 산 너머 세상으로 나가고 말리라.' 도전 없이 성취는 없다. 꿈은 곧 도전이다. 소년처럼 무모한 모험도 감행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도전하고 모험하라. 그래야 인생의 무지개가 뜬다.

제22회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역대 최고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는 이시대 목사님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경배와 찬양, 기도, 신현명 목사님의 비전세미나까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커리큘럼을 가진 수련회였다. 이를 연속 저녁세미나에 강사로 단에 오른 신현명 목사님은 녹록치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은 곧 세상으로 나갈 자들이거나 혹은 이미 세상과 직면한 자들도 있을 겁

발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은 머리로 일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빗자루에 쓸어 머리에, 마음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악이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는 자신감이 있는 법 아닙니까? 둘째, 뱀은 소리가 안 납니다. 사회생활이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소리가 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고객이 만족하듯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만족시켜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셋째, 뱀은 온 몸이 정보기관입니다. 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말이나 행동, 의상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천박한 말과 행동, 그리고 옷차림을 삼가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명한 머리보다 메모가 당신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후에 이타주의가 성립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우리는 성공할 DNA를 타고 났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



제22회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2018년 8월 9일~1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니다. 다들 알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표현대로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양이 어찌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면 말입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왜 뱀에 비유하셨는가 하면 사단은 완전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뱀은 손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만 들어가면 어디든 들어갑니다. 손

시대는 소리 없는 정보전쟁 중입니다. 늘 신문과 책, 뉴스를 접함으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뱀은 흙에 가면 흙 색깔로, 숲에 가면 나무 색깔로 변합니다. 일을 숨기는 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프로젝트나 정보를 자랑하다보면 도적맞게 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하게 되고, 진실할 수

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은 연고요, 노력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자세히 조목조목 알려주셨다. 문제는 실천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기 때문이다.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만한다면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성령세례



경배와 찬양



비전세미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17)



팔자타령 그만하고 네 신분을 알라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군가 대단한 사람과 결혼하고,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은 “저 팔자는 무슨 팔자인데? 나쁜 팔자냐?” 라며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팔자를 잘 타고 나서 성공하고, 잘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사람은 어제 그 사람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야 말리라’, ‘저 사람과 결혼하고야 말리라’, ‘돈을 벌고야 말리라’는 생각이 그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했고, 부지런히 가꾸게 했고, 부지런히 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어제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절대 팔자 때문이 아닙니다. 팔자라고 생각하는 건 속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타고난 팔자는 못 바꾸니 그냥 이대로 살라고, 그런대로 한 세상 살라’고 여러분을 찌는 겁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

이왕 팔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대로 우리 팔자가 어떤지 알아볼까요? 우리처럼 팔자를 잘 타고 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 그것도 아무나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창세전에 작정하고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니... 세상에 이런 팔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팔자로 태어났으면서 지 지리 궁상떨고, 남의 밑에서 빌빌거리고 살고, 남들 잘 되는 것을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이 결과라고(렘6:19). 아무리 왕의 자녀라고 해도 생각이 작으면 인생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재벌 자제라도 만사가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면 밝고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

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은 작은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낳고, 썩은 생각은 썩은 삶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천인이, 만인이 안 돼도 나는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지만, 나는 산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열 두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최대치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막5:28)는 그녀의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무가 병들었을 때 가지를 친다고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화분에서 약 3년 정도 자란 영산홍을 화단에 옮겨 심어준 적이 있습니다. 옮긴지 꽤나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니 이게 그전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꽃이 부실해보였습니다. 하여 분재를 잘 아는 분께 물어보니, 그 분 하는 말이 필시 뿌리가 돌돌 말려 있을 테니 그 뿌리를 잘라줘야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 정말 뿌리가 여전히 화분 속 모양대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주었더니 그 후 쑥쑥 자라고 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썩은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

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꽃이 활짝 핀다. 뿌리는 근원, 곧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에 회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집회를 마치고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수족관에 갔습니다. 저와 일행은 수족관 한 곳을 지나다가 상어와 작은 물고기들이 한 공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고로 상어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해하자 그곳 담당자가 그 이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큰 수족관에 상어와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당연히 상어가 그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치고 그곳에 전기가 흐르게 해놓는답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어가 어느 때처럼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다 유리벽에 부딪치면 전류가 흘러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일이 하루 이를 반복되다보면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다치는구나. 절대 잡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유리벽을 제거해도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조련사가 주는 먹이만 먹는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조련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쳐놓고 상어를 조련하듯 하며 ‘이건 안 돼.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셨는데, 마귀란 놈이 우리의 본성을 잊게 하여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커스에 나와 온갖 재주를 부리는 코끼리도 이런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몸집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련사에게 꼼짝도 못하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어울리지 않는 몸짓을 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바다의 왕자 상어나 산 속의 왕인 코끼리가 본성을 잃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잊고, 타고난 본성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길은 생각의 전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악한 것들이 손 못 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는 엄마소 닮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법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에 의해 움직인다

어느 노인이 산속에서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집 닭장 속에 함께 넣었습니다. 때가 되자 병아리가 부화되고, 그 속에서 독수리도 태어났습니다. 이 독수리는 닭이 엄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닭을 채가지고 가는 것을 어린 독수리는 보게 됩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저것은 닭을 잡아먹고 하늘을 차고 오르는데, 나는 왜 이 닭들과 놀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일까?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어린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날아보려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닭들은 ‘너 미쳤니?’ 하고 야유했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그래, 내 주제에 어떻게 하늘을 날아?’ 하면서 날개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또 나타나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그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를 향해 ‘넌 독수리야. 왜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야? 넌 날 수 있어.’ 하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독수리는 날개를 계속 퍼덕였고, 결국 땅을 차고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계속 닭장 속의 닭으로 살게 하려고 태클을 걸지만, 태생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신분을 알았으니 팔자타령일랑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네 팔자에 무슨’, ‘네 주제에 무슨~’ 그러거들랑, “내 팔자가 어째서? 내 팔자는 하나님 자녀 팔자다.”라고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 생산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웅달샘 ::

투자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매니저로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은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과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도 남녀의 사랑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 그는 기업을 설립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이 성장과 효율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투자와 저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돼지저금통에 모아둔 돈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은행에 저금하거나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자금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자금으로 상가나 공장을 짓는데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면 저축과 투자, 생산, 고용이라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의 풍족한 삶은 저축과 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젊을수록 좋습니다.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더 큰 성

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는 과거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자일 것입니다. 주주가 되는 데는 생각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은 대중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고 투자한 돈에 대해 보상받습니다. 투자자는 자본의 사슬에서 첫 번째 고리입니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투자할 기업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우리가 매입한 주식은 미래에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나 전쟁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상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목사님께서서는 누차 강조하셨지요. 정보는 우리 삶의 최대 자산이며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배움은 목적에 이르는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성공의 정보도 바로 배움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돈도 정보와 지혜 따라 움직이기에 배워서 확실한 정보를 얻을 때 배움과 정보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경 집사 mkwdf@hotmail.com

:: 성경에세이 ::

약점 잡히셨나요?

여보게! 내가 사람만 상대한 지 30년이 넘었지 않은가? 정말 다 가진 사람부터 몸 밖에 없는 사람까지, 꼭짓점 인생부터 저 밑바닥 인생까지 다 만나봤지. 그래서 웬만한 심리학자보다 많은 심리학적 이론과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 사람의 심리 중 하나에 대해 말해볼까. 사람은 내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심리라네. 상대가 내 약점을 알고 있으면 뭔가 꼬투리를 잡힌 거 같은 느낌을 받지. 책이 잡혔다고나 할까? 또 상대가 내 약점을 이용할까봐 두려운 거지. 그래서 그것에서 도망치고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아니겠나.

여보게!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공한 사람들이 약점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이겨내고, 혹은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자들 아닌가. 성경의 인물에서 그 주인공을 찾자면, 삭개오라 할 수 있지. 그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강제 징수하여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리였네. 그래서 패국노 취급을 받고 있었지. 더구나 그는 외모적으로도 아주 큰 약점이 있었지. 키가 굉장히 작았네. 그러나 그는 그 약점에 뽀나무에 올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을 집에 모시는 영광을 맛보았지 뭔가. 약점을 감추려하지 말게.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이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사는 창녀였음을 드러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뤄졌네. 물론 세상에는 약점을 이용하고 파고드는 암잡한 인간들도 있지만, 약점을 덮어주거나 혹은 가르쳐주고 보완하도록 도와주려는 선한 사람이 더 많네. 문제는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약점을 지적했을 때 그가 크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큰 그릇이 되어야 상대가 지적해도 알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 말을 담을 수 있네. 내 약점을 안다는 이유로 상대가 죽기를, 내 생활반경에서 떠나기를 바라지 말게. 내 약점을 승화시켜 약진의 발판을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朋友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후 어둠과 빛을 가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닷새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엿새 되던 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좋으셨지만,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아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먹고 타락함으로 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아니었다. 되레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아파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창세 때의 그 기쁨을 되찾고 싶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들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다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신다. 이제는 당신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로 평가하고 판결하신다. 최종평가가 최소 ‘좋았더라’는 나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빴더라’ 라든지 더는 ‘심히 나빴더라’, 이렇게 판결이 나면 영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자. 보시기에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 아닌, 보시기에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슥3:17).

예수중심편집실



:: 생명의 말씀 ::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

덴마크의 유명한 미래학자의 책 『드림 소사이어티』에 보면, 앞으로 도래할 시대를 ‘꿈+감성+이야기’가 주도할 시대로 특징짓는다. 이제는, 물건 하나를 팔아도 그 물건에 입혀진 독특한 스토리와 감성이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어필하려 해도 그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야만 타인에게 주목받고 감동을 주는 시대란 말이다. 취업난이 빚어낸 신조어 ‘스펙’! 이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스토리’는 남들에게 공유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자신만의 진정한 실력이 된다.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총회장 목사님은 ‘남의 것을 부러워 말고, 나만의 것을 찾아라! 내 장점을 활용하라!’고 교육하셨다. 스펙으로 평준화되기 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유일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차별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것을 통치하시는 역사들을 보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입혀진 다양한 스토리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사도바울이 당한 고난의 종합세트(고후11장)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독특한 고난이요 역경이었으나, 그가 가진 스토리를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절절히 깨닫게 한다.

남들보다 내가 가진 고난과 역경이 더하다면, 그것은 나만의 유일한 스토리로 무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곤고함과 고난을 피해갈 순 없다(전7:14). 인간은 개념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회로 애락을 직접 통과하며 살아야 할 ‘실존’이다. 그냥 불려서 아는 하나님과 체험된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욥42:5).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세상은 스펙으로 우리를 평준화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무이한 스토리를 가진 자들(갈6:17)이어야 한다.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내겐 너무 부담스러운 일

제가 이 지면에 처음으로 글을 쓴 게 2012년 여름이었으니까 문서선교부에서 글쓰기로 봉사 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편씩 대략 칠십여 편의 글을 썼지요. 6년의 시간이면 초등학교생이 중학생이 되고 신입사원이 대리가 되는 긴 시간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글을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의 글이 완성되기까지 보통은 일곱 시간, 짧게는 네다섯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오롯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고, 그 전에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하는 시간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요. 이 봉사가 제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기분으로 며칠을 보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글을 썼다 지웠다면 몇 시간째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저 자신은 그저 주님의 타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저의 어설픈 조

언이나 자랑, 그럴싸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도저히 글을 못 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펑크 없이 글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글을 쓰며 봉사한 시간들은 허투루 가지 않고 제 신앙을 키워주고 또 지탱해 주었지요. 이 귀한 지면에 글을 쓸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저 자신의 행실을 좀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행여 글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성경도 억지로라도 더 읽게 되었고요. 또한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

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일이 안 풀려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그것에 관해 글을 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위안 받고 깨닫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담스러운 일은 되도록 피하고자 주의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나 발표 등의 제안을 종종 거절하기도 했었지요. 그 거절들이 제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자의든 타의든 과분한 프로젝트 맡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지요. 제 실력에 실망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끝냈을 때 저는 좀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게 조금 벅찬 일, 그 안에는 늘 성장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능력에 비해, 연차에 비해, 신앙에 비해 과분한 일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압니다. 그 일을 통해 발전해 있을 자신요. 그러니 우리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는 게 어떨까요? 응원합니다.

신은혜 자매
dopal0203@naver.com

:: 오늘의 메시지 ::

좁은길 따라가기

초교파를 지향하는 보수 원로 목사님을 만났다.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린 내 글에 은혜 받았다고 만남을 청해서다.

사모님을 비롯해 신학박사들과 함께 만났다.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누구냐 물어 “이초석 목사님입니다.” 대답하니 정적이 흘렀다. 침묵 후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단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와 관계가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초석 계열’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다칠 수 있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하였다. 몇 시간 동안 식사와 차를 함께하며 대화해보니 너무도 신앙관이 잘 맞았다. 내 책과 설교 녹음을 주었다. 며칠 후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다. ‘우리 자주 만남시다’ 하여 감사히 받았다.

그 후 기독교 갱신을 위한 목사, 선교사 모임에 초청 받았는데 열댓 명 목사, 선교사들이 모였다. 초교파적으로 교회 갱신을 위한 모임의 발기인 격이었는데, 명단에 보니 맨 밑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모인 분들의 소개가 끝난 후 나만이 따로 소개를 직접 하도록 배려하여 소개를 했으나 역시 총회장 목사님의 이름을 들은 몇몇 목사, 선교사들은 인격적 모멸을 느끼도록 인신공격을 포함해 교리와는 상관없는 무례한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 성직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사람을 앞에 두고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총회장 목사님의 이름을 아무런 존경 없이 부르니 내가 이 자리에 왜 초청받아서 이런 날 선 공격을 받아야 하나 난감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니 괜찮

은 분들인데 접점이 없었다. “나는 목사님의 교리를 따르는 것보다 이초석 목사님 삶을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수십 개 종파에 대해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들의 강령을 만들었다는데 성령이 왜 각기 다른 말을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이 이단이라 정죄하셨습니다. 왜 교파와 교단을 구분하여 이단으로 정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교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초석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정죄하지 마세요.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이적을 행하여 금하였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면 나를 돕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죄는 주님의 뜻입니다. 베엘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베엘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속히 나오라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먹어도 좋다고 했네.’ 하여 믿고 먹고 마시고 돌아가다가 사자에 찢겨 죽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환상에 의지합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더욱 집중할 뿐입니다.”

성격 급하고 참지 못하는 나답지 않게 겸손하고 담담하며 온유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10:19~20),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고전4:13).

열 명이 넘는 목사, 신학자. 선교사들과의 대담에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응답할 말을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니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조금이나마 돌이킬 계기가 된 듯싶다. 장시간 모멸과 수모를 당하고 나니 마치 이상한 괴물처럼 대하던 목사, 선교사님들이 한 걸 부드럽게 변하며 진심으로 나를 포용하는 분도 계셨다.

세 번에 걸친 만남 속에 원로 목사님, 신학박사, 선교사, 신학대학 총장과의 긴 시간의 대담을 거치니 거꾸로 총회장 목사님의 그릇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비평하는 자는 비평하고, 개는 짖어야 한다며 개의치 않으시는 그 대범함. 변명하지 않으셨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사자인 목사님은 오죽하셨을까.

‘이초석 계열’로 살아가기가 녹록하지는 않다. 하지만 좁은 길이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이 길이라 믿으니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본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내 몸을 건강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과 혼과 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영이 무너지면 곧 지옥이요, 혼이 무너지면 무식이며, 육이 무너지면 질병과 고통이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생전에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아프기 전에 자기 육체를 돌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기 시작해야 몸을 돌본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몸이 아파도 몸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 그들의 노후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않고 소홀히 대했기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육체의 소중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건강을 잃으면 기도하기가 힘들다. 부정의 생각이 긍정의 생각보다 강해지고 매사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몸에 힘이 없고 아프기 때문이다.

나도 한번 허리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운동을 시작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왜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는 없었을까? 지금 와서 보면 지혜가 없어서였고 지식이 미천했기 때문이다.

아침을 깨우고 가볍게 운동을 시작해보자. 하루 30분 넘는 정도의 땀 흘릴 수 있는 운동량이면 충분하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이 길러지고 근력이 향상되면 업무의 효율이나 공부의 집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침이 여의치 않으면 저녁에 해도 좋다.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히 노력하자.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5년 후, 10년 후는 지금의 내가 만든다. 영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처럼, 혼을 위해 독서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육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